

영어매개 대학전공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김현주*
단국대학교
장셋별
단국대학교

Kim, Hyun-Ju & Chang, Saebyeol. (2013). A study of perceptions on university major subjects in English-mediated i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4(3), 259-28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students and professors in 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 at a university. Seventy hundred sixty five university students and 23 profess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ir perceptions of EMI were examined by th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and professors consider that EMI is somewhat effective in terms of improving English skills in general. Students consider that among four language skills, listening has the most positive influence and professors think reading has the most positive influence on improving language ability. Second, students believe that majors should be taught in English but with some supplementary materials or additional lectures in Korean so they can understand the contents thoroughly. On the other hand, professors believe teaching majors totally by EMI is better for students if they do not have much problem understanding the lectures. Lastly, students think learning majors in EMI by native speakers is primary important whereas professors believe using the textbook written in English is the most necessary condition for the successful EMI. This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implement EMI more effectively at a university for students and professors.

[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perceptions/language ability/majors/
영어매개강의/인식/언어능력/전공수업]

* 제 1저자: 김현주, 교신저자: 장셋별

I. 서론

실용영어교육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다. 대학의 전공수업을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매개 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는 국제화 및 세계 경제의 통합화 시대에 있어서 전공지식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시장 개방의 노력으로 시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박혜숙, 2006b). 또한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화 지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영어매개 강의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도 보여진다. 즉, 대학 입시 준비생들에게 대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대학평가에서 영어강의가 국제화 지수에 포함되어 있어 많은 대학들이 전공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김명환, 2007).

2005년 무렵부터 대학들은 전공영어 강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카이스트에서 전면 영어강의를 도입함으로써 영어강의는 급격하게 확대되었다(박혜숙, 박인우, 2006). 2011년 기준 서울소재 대학이 시행중인 영어강의 비율은 20~40% 수준으로서 서울대가 15%, 연세대 29%, 고려대 40%, 경희대 34%, 성균관대 36%, 중앙대 20%, 서강대 26% 등으로 나타났다(교육전문신문, 2012). 서울소재의 성균관대는 전체 강의에서 영어 강의를 차지하는 비율이 2011학년도 기준 36.9%에 이르며, 학생들은 국제어 강의로 교양과목 6학점, 전공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학생 또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다섯 과목 이상 영어강의를 들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교수진에게도 영어매개 강의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영철, 2008). 현재 서울 주요 대학들은 신규 교수 채용 때 일정 학점 이상을 영어로 강의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영어강의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Y대는 교수로 임용된 후 3년 안에 6개의 영어 강좌를 맡아야 하고, 6년 안에 24학점의 전공수업을 영어로 강의해야만 한다(신소영, 최수정, 2012).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영어매개 강의 수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영어매개 강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김도식, 2008; 김명환, 2007). 즉, 많은 학생들은 영어매개 강의를 통한 전공공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심혜진, 2009). 그리고 영어듣기와 읽기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전공지식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Cummins, 1984).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도 영어매개 강의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부담만 가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소연과 박혜선(2004a)은 Y대학의 공과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약 85% 학생들이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 부족과 교수자와 학생간의 상호작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어능력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하였다. S. Y. Kim(2002)은 영어매개 강의가 반드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적절하고 정확한 영어 사용과 필요할 경우 한국어 혼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 Kim(2002) 또한 교수자 변인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교수자의 영어 사용량과 구사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영어매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교수자의 영어능력보다는 전공내용의 전달능력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 연구(E. Kim, 2002)와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D. H. Kang, 2008)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영어매개 강의에 있어서 학습자 변인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교수자의 어려움을 보여준 연구(강순희 외 5인, 2007)는 대학의 전공수업에 대해 모국어 진행 방식이 전공습득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소수의 동일전공의 학습자 또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전공이 다양한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국제화 시대로 갈수록 영어매개 강의를 개설하는 대학의 수는 증가해 왔다. 이에 따른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연구도 증가해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자가 인식하는 영어강의의 효과성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연구접근이 요구된다(배성혜, 2006). 그러므로 현재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인식을 비교하여 연구해 보고 문제 요인들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대학생과 교수자를 대상으로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대학의 영어매개 강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매개 강의

대학의 영어매개 강의는 전공과목을 영어를 통해 가르치는 강의를 일컫는다(심혜진, 2009). 이는 내용기반 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학의 전공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영어매개 강의라고 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ESL 환경에서처럼 일상 생활에서 목표언어에 노출되는 몰입식 영어교육이 아니라, 교실 환경에서만 목표언어에 노출되는 환경적 제한점을 지닌 EFL의 한 교수 형태이다. 따라서 영어매개 강의는 전공지식 습득과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내용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어에 노출되어 인위적인 EFL교실환경에서의 영어습득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영어매개 강의는 영어가 제 2 언어인 환경에서의 몰입식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다. 내용기반 교수는 언어교수가 언어적 교수요목보다는 학생들이 습득할 내용 혹은 지식중심으로 조직된다(Richards & Rogers, 2001). 이것은 내용기반 교수에서 언어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 분야를 통해서 제 2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목표어의 자료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어 자료가 유의미한 문맥으로 학습자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성공적인 언어 학습이 나타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Richards & Rogers, 2001). 학습자들은 습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흥미 있고, 유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제 2 언어를 가장 성공적으로 배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연관된 진정성이 있는 자료(authentic text)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교수자는 가르치는 내용의 전문가여야 하며 교수자료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표현의 단순화 또는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을 유도하여야 한다.

2. 선행 연구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J. Ha(2010)는 서울소재 한 대학의 영어영문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전공수업을 영어로 강의했을 때와 한국어로 강의했을 때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일한 교수자를 통해 15주 동안 이루어진 전공수업 결과,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지식습득의 향상이 두 분반(영어매개 강의, 한국어매개 강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영어 쓰기 과제, 사전/사후 설문조사, 사전/사후 영어 쓰기 평가(MATE) 및 읽기 평가(TOEIC), 사전/사후 전공지식 시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두 분반 모두 전공지식 습득 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영어 실력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주의 짧은 기간과 평가과업의

제한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영어능력의 향상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E. Kim(2002)는 대학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지식습득을 조사한 결과, 학습자료, 평가/과제 내용,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료, 교수·학습량, 체계적 강의를 전공지식 습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는 교수자가 강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홍성연, 민혜리, 함음혜(2008)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영어강의의 특성을 제안하고 이를 영어매개 강의에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교수자의 충분한 강의 안내, 효과적인 수업 내용 전달, 학습자의 영어 사용 유도, 공정한 평가 등이 학습자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영어매개 강의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바라는 점으로써 교수자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인식 연구 또한 필요하겠다.

김달효(2010)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무분별한 영어강의의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하고 있다. 강의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전공의 성격과 필요성에 부합하여 교수자와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대학 차원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영어매개 강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서지영, 2010)에 따르면, 전면적 영어강의를 시행하기 이전에 보조교재와 워크북을 통해 전공내용과 언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제안된다. 또한 영어쓰기를 강화하고, 골라 읽기(scanning)와 훑어 읽기(skimming)와 같은 읽기 전략을 통해 전공지식 이해와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안된다. 또한 교수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강소연, 박혜선, 2004b; 맹은경, 한호, 김현옥, 김성완, 2011; 신소영, 최수정, 2012; 오희정, 이희원, 2010)에서는 교수자의 수업운영 능력을 증가시키고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교수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및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만족도 및 성취도를 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박혜숙, 2006a)에 따르면,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며 전공영어에 대한 지식습득에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는 전공지식이 부족하여 전공습득 및 영어능력 향상에 제한이 있으나 고학년의 경우 축적된 전공지식으로 인해 전공습득 및 영어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할 만하다. 황종배와 안희돈(2011)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전공수업에 대해 영어매개 강의 학습자가 한국어매개 강의 학습자보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전공지식의

습득이나 영어능력 향상의 면에서는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매개 강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적인 견해—학생들의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공수업 이해도 저하, 교수자의 영어구사 능력의 미흡으로 인한 수업 질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아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강소연과 박혜선(2004b)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토론이나 발표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문법적 오류나 부정확한 단어사용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영어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영어강의에 대한 불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민과 송영수(2012)는 e-러닝 영어매개강의를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면대면 영어매개 수업(송영수, 2008)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교실 학습이든 e-러닝 학습이든 구분 필요없이 영어매개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자의 영어능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만족도에 있어서 큰 격차가 나타나 하위집단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공 지식 습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나 영어능력 향상은 학생의 영어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 및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전공의 특성에 따라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인식 및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교육의 부실화, 학습동기 저하 및 한국 문화 정체성 상실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지만 국제화라는 현실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매개 강의는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영어매개 강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인식 연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영어매개 강의가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공에서 영어매개 강의를 경험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을 모두 분석하여 효과적인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소재 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도 재학생과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수자 설문조사에는 대학 이메일을 통해 전체 교수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한 결과 총 23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수자의 승낙하에 영어매개 강의 시간에 학습자 설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교수자 설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자 설문을 승낙한 교수들의 협조로 다양한 학과에서 학습자 설문을 시행하였다. 학습자 설문조사에는 본 연구자들이 직접 강의실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본 연구목적 및 설문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15분 정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765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설문에 응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성	학습자		교수자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성별	남	362	47.3	21	91.3
	여	403	52.7	2	8.7
나이	19-25	716	93.6	-	-
	26-30	49	6.4	-	-
	35-40	-	-	7	30.4
	41-45	-	-	7	30.4
	46-50	-	-	8	34.8
	51 이상	-	-	1	4.3
(대상)학년	1학년	297	38.8	5	21.7
	2학년	210	27.5	7	30.4
	3학년	166	21.7	7	30.4
	4학년	92	12.0	4	17.4
전공	인문	221	28.9	3	13.0
	자연과학	69	9.0	4	17.4
	사회과학	88	11.5	2	8.7
	상경	128	16.7	4	17.4
	공과	110	14.4	3	13.0
	사범	42	5.5	5	21.7
	예술	53	6.9	2	8.7
	기타 (법, 건축, 국제)	54	7.1	0	0.0
합계	765	100	23	100	

전체 학생 참여자, 765명 중 남자는 362명(47.3%), 여자는 403명(52.7%)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38.8%)과 2학년(27.5%)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인문과 상경대학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91%) 남자 교수자로 40대(71.4%)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가르치고 있는 학년은 2학년(30.4%)과 3학년(30.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가 교수자 수에 비해 월등히 높아 두 집단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집단내에서의 인식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수자의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효과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한 후, 대학 영어매개 강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노승빈, 2012; 박혜숙, 박인우, 2006; 전지현, 2002; 황종배, 안희돈, 2011; E. Kim, 2002)에서 개발된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학습자 및 교수자 설문지는 표 2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영역(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인식,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 영어매개 강의의 개선점)으로 구성되었다.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본인의 전공/학과에 영어매개 강의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은 ‘예’=1, ‘아니오’=0으로 분석하였으며 영어매개 강의의 수강/강의를 위한 준비도를 묻는 문항(‘자신의 현재 영어 능력은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진행하는 데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1, ‘준비가 필요하다’=2, ‘준비가 약간 더 필요하다’=3,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4로 분석하였다.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자신/학생은 현재 영어매개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은 ‘30% 이하’=1, ‘31%~50%’=2, ‘51%~70%’=3, ‘71%~90%’=4, ‘91% 이상’=5로 분석하였다.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현재 수강/강의하는 영어매개 강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2, ‘보통이다’=3, ‘대체로 만족한다’=4, ‘매우 만족한다’=5로 분석하였다.

또한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효과를 묻는 문항(‘영어매개 강의는 전반적 영어능력/듣기 능력/말하기 능력/읽기 능력/쓰기 능력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은 4단계 척도로 ‘전혀 효과가 없다’=1, ‘별로 효과가 없다’=2, ‘약간 효과가 있다’=3, ‘매우 효과가 있다’=4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개선을 묻는 문항(‘영어매개 강의의 운용 및 개선방법에 대한 각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나타내시오’)은 각 진술에 대해 5단계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1, ‘중요하지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로 분석하였으며 개선점을 자유롭게 쓰는 개방형 문항(‘영어매개 강의의 운용 및 개선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써주세요’)도 포함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설문영역	설문내용	문항 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강의대상)학년, 전공, 영어매개 강의 수강(강의)경험, 영어능력 등	9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인식	영어매개 강의 필요성, 준비도, 이해도, 만족도	4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전반적 영어능력)	5
영어매개 강의 개선	강의자, 강의 교재 및 진행 내용	10
기타	영어매개 강의 필요성/불필요성 및 개선점(자유응답)	1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사례 수와 유효 퍼센트(%)를 구하고, 참여자의 배경에 따른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도 5%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문항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회수를 표시한 후 응답회수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학습자와 교수자)의 주된 생각으로 해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영어매개 전공수업의 실태

영어매개 강의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영어강의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만족도, 수강/강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먼저 영어매개 강의 수강 또는 강의를 위해 자신의 영어능력 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네 단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준비도

구성	학습자		교수자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72	9.5	0	0.0
준비가 필요하다	294	38.6	5	22.7
준비가 약간 더 필요하다	277	36.4	10	45.5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	118	15.5	7	31.8
합계	765	100	23	100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영어를 매개로 하는 수업에 있어서의 영어사용 능력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자의 경우, 48.1%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영어매개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 영어로 전공수업을 이끌 수 있는 교수자의 준비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영어매개 강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52.7%)은 강의 내용의 70% 이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자들(50.0%)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 내용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자들이 영어매개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영어매개 강의의 이해도

구성	학습자		교수자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사례 수	유효 퍼센트(%)
91%이상	130	17.1	1	4.5
70-90%	271	35.6	4	18.2
51-70%	242	31.8	6	27.3
31-50%	83	10.9	7	31.8
30%이하	35	4.6	4	18.2
합계	765	100	23	100

다음은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영어매개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458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만족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매개 강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거나(56.1%) 조금 만족하고 있는(34.8%)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

구성	사례 수	유효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1	13	2.8	3.5033	.92034
2	42	9.2		
3	159	34.8		
4	188	41.1		
5	55	12.0		
합계	458	100.0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 또는 강의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학습자(71.3%)와 교수자(78.3%) 모두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강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필요를 나타냈다.

표 6
영어매개 강의 수강/강의 의사

영어매개 강의 수강/강의 의사	학습자		교수자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예	543	71.3	18	78.3
아니오	219	28.7	5	21.7
합계	765	100.0	23	100

3.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는 다섯 가지 측면(전반적 영어능력,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1, ‘효과가 없다’=2, ‘약간 효과가 있다’=3, ‘매우 효과가 있다’=4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는 듣기 능력 향상에 영어매개 강의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수자는 읽기 능력 향상에 영어매개 강의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49.8%)와 교수자(40.9%) 모두 영어매개 강의가 쓰기 영역에 있어서 효과가 가장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

문항	수준	학습자		교수자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사례 수	유효 퍼센트(%)
전반적 영어능력	1	47	6.1	3	13.6
	2	180	23.5	3	13.6
	3	429	56.1	11	50.0
	4	109	14.2	5	22.7
듣기 능력	1	41	5.4	3	13.6
	2	164	21.5	2	9.1
	3	388	50.8	15	68.2
	4	171	22.4	2	9.1
말하기능력	1	108	14.1	3	14.3
	2	264	34.6	7	33.3

	3	300	39.3	10	47.6
	4	92	12.0	1	4.8
읽기 능력	1	37	4.8	3	13.6
	2	207	27.1	3	13.6
	3	419	54.8	10	45.5
	4	101	13.2	6	27.3
	1	74	9.7	4	18.2
쓰기 능력	2	306	40.1	5	22.7
	3	326	42.7	10	45.5
	4	58	7.6	3	13.6

학습자와 교수자의 영어 능숙도에 따른 영어매개 강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표 9에서 볼 수 있다. 영어 능숙도는 자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1, 중상=2, 중=3, 중하=4, 하=5의 5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8

영어 능숙도에 따른 영어매개 강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학습자

구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반적 영어능력	상	29	3.03	.680	10.324 (상, 중상>중, 중하, 하) .000***
	중상	136	3.08	.745	
	중	283	2.79	.742	
	중하	224	2.62	.716	
	하	92	2.61	.796	
듣기능력	상	28	3.07	.716	8.728 (상, 중상>중, 중하, 하) .000***
	중상	136	3.22	.716	
	중	283	2.90	.832	
	중하	224	2.74	.783	
	하	92	2.79	.749	
말하기 능력	상	29	2.75	1.023	8.755 (상, 중상>중하, 중>중하) .000***
	중상	136	2.76	.928	
	중	283	2.55	.833	
	중하	224	2.25	.817	
	하	91	2.40	.894	
읽기능력	상	29	2.96	.778	4.904 (상, 중상>하) .001**
	중상	136	2.96	.792	

	중	283	2.74	.718		
	중하	224	2.72	.665		
	하	91	2.57	.790		
	상	29	2.75	.786		
	중상	136	2.58	.847		
쓰기능력	중	283	2.54	.753	4.492	.001** (상>중하, 하)
	중하	224	2.37	.690		
	하	91	2.30	.839		

* $p < .05$

표 9

영어능숙도에 따른 영어매개 강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교수자

구성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전반적 영어능력	상	2	3.50	.707		
	중상	15	2.73	1.099	.542	.591
	중	5	2.80	.447		
듣기능력	상	2	3.00	.000		
	중상	15	2.60	.985	.533	.595
	중	5	3.00	.000		
말하기 능력	상	2	3.00	.000		
	중상	15	2.40	.910	.241	.788
	중	5	2.40	.547		
읽기능력	상	2	3.00	1.414		
	중상	15	2.80	1.146	.089	.915
	중	5	3.00	.000		
쓰기능력	상	2	3.00	1.414		
	중상	15	2.40	1.055	.544	.589
	중	5	2.80	.447		

* $p < .05$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영어 능숙도를 중으로 평가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 영어능력·듣기·말하기·읽기능력에 대해서는 특히 상, 중상에 해당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중하/하)에 비해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어 능숙도를 상으로 평가한 집단이 중하/하로 평가한 집단보다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영어

능숙도를 높게 평가한 학습자들일수록 영어매개 강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자의 경우에는, 한 대학의 교수자 응답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신의 영어 능숙도를 중상으로 평가한 교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영어 능숙도에 따른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수자는 자신의 영어 능숙도가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대학의 교수자 응답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영어매개 강의의 개선점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공분야의 특성 및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에 따른 차별적 교수방법 등이 교수자의 영어 능숙도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습자들은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48.1%)과 반대(51.9%)를 고루 나타냈지만 대다수(68.2%)의 교수자들은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다. 학습자가 나타낸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향후 영어매개 강의 수강의사를 조사한 결과, 표 6과 다소 상이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한 대학의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즉, 영어매개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습자(51.9%)도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수강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을 보여준 교수자들(68.2%)보다 강의의사를 나타낸 교수자(78.3%)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본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및 의무강의에 대한 대학 정책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표 10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성	예 아니오 결측값	사례 수 (유효 퍼센트 %)	
		학습자	교수자
영어매개 강의 필요성	예	362 (47.3)	15 (68.2)
	아니오	390 (51.0)	7 (31.8)
	결측값	13 (1.7)	0 (0.0)
합계		752 (100.0)	23 (100.0)

또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응답내용을 살펴본 결과, 영어매개 강의의 필요성/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11과 표 12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영어매개 강의를 통한 전공수업은 전공지식 습득 및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맞는 강의방식이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향후 직업적인 측면이나 영어원서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의 다양한 이유로 영어매개 전공수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표 11
영어매개 전공수업의 필요성: 학습자*

이유	사례 수(%)	주요 답변 내용
전공 특성적 측면	99(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문학 전공인 만큼 영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 공학단어가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원어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과의 특성상 국제문제가 다뤄지고 실무에 쓰일만한 전문용어들과 설명을 영어로 해야 하므로 필요함
영어 실력 향상	57(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생활화가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필요함 평소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동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함 영어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함 읽고 번역뿐만 아니라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기 위해 필요함
시대적 흐름	49(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필요함 세계화 시대로 영어가 필수인 시대에 너무나 당연함 어학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이 효율성이 있으므로 필요함
기타 이점	33(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필요함 전공분야를 넓은 관점에서 보기 위해 필요함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함 직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함 대학원의 전공연계를 위해 필요함 해외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용어가 영어로 많이 쓰이므로 필요함
영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	1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를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함 영어수업이 흥미를 유발하므로 필요함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필요함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필요함
영어	2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비용이 높기 때문에 원어수업이 필요함

원서 사용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를 해석할 경우 영어로 쓰인 본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함 • 보통 원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필요함
교환학생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필요함
절대평가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평가 과목이 필요함
다양성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다양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영어매개 강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함
기타	1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어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음
합계	308	

* 영어매개 전공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개방형 설문문항에 응답한 학생(308명)의 답변을 정리한 것임

또한 학습자들은 영어매개 강의가 영어능숙도의 문제로 내용 이해가 어렵고 의사전달 또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강좌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 영어실력으로 인해 특정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수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불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영어매개 전공수업의 불필요성: 학습자*

이유	사례 수(%)	주요 답변 내용
전공 수업 이해도 저하	131(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에 관련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데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더 혼란스러우므로 불필요함 • 영어를 잘 못해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함 • 전공은 우리말로 들어도 어렵는데 영어로 하면 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불필요함 • 영어로 하면 교수님의 내용전달이 어려워 지는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려움
비효율성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들도 설명하시다 답답해서 한국어로 수업을 함 • 강의자료만 영어일 뿐 한국어 수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업이 많음 • 굳이 수업 전체를 영어로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음 • 학생들의 레벨 차를 고려하지 않으니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 •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수업임
필요성 부족	17(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음 • 교수님도 영어 전공 아니시고 영어는 토익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함
		• 왜 영어로 전공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음
교수자의 영어구사능력	1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들도 설명을 명확하게 못함 • 교수님들의 영어 강의 진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함 • 교수님이 한국 분이셔서 발음도 안 좋고 영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음
전공 특성	1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계열인데 다른 나라말을 영어로 배우면 정말 헛갈림 • 내 전공은 영어로 배우기가 정말 어려움
기타	2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은 영어강의가 무리라고 생각함 • 개별적으로 영어 공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함
합계		214

* 영어매개 전공수업의 불필요성에 대한 개방형 설문문항에 응답한 학생(214명)의 답변을 정리한 것임

3. 영어매개 강의의 개선 방안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영어매개 강의의 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학습자들은 ‘영어 능력별(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M=3.84)를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수자는 ‘교재는 영어원서여야 한다’(M=4.27)를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매개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표 14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3
영어매개 강의의 개선 방안

구성	평균(표준편차)	
	학습자	교수자
영어매개 강의 개선방안		
영어가 유창한 원어민이 진행해야 한다	3.65(1.18)	3.18(1.22)
영어로만 진행해야 한다	3.37(1.20)	3.41(1.37)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이 진행해야 한다	3.09(1.20)	3.18(1.01)
영어와 한국어의 혼용이 필요하다	3.17(1.19)	2.64(1.40)
영어 능력별(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84(1.10)	3.32(1.36)
영어매개강의의 강좌 수를 늘려야 한다	3.20(1.14)	3.10(1.31)
교재는 영어 원서여야 한다	3.34(1.17)	4.27(1.20)

표 14
바람직한 영어매개 강의의 운용 방식

구 성	사례 수(유효 퍼센트)		
	학습자	교수자	
영어매개 강의 운용 방식	영어교재 - 영어 보충자료 - 영어강의	167(21.8%)	14(60.9%)
	영어교재 - 한국어 보충자료 - 영어강의	352(46.0%)	5(21.7%)
	한국어교재 - 영어 보충자료 - 영어강의	133(17.4%)	1(4.3%)
	한국어교재 - 한국어 보충자료 - 영어강의	42(5.5%)	0(0.0%)
	영어교재 - 영어 보충자료 - 한국어강의	65(8.5%)	1(4.3%)
결측값	6(8.8%)	2(8.7%)	
전체	765(100%)	23(100%)	

전공 수업을 영어매개 강의로 진행할 때 바람직한 운용방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습자들(46.0%)은 ‘영어교재—한국어 보충자료—영어강의’로 응답하였으며 교수자들(60.9%)은 ‘영어교재—영어 보충자료—영어강의’로 응답하였다. 이는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영어로 전공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어 보충자료를 통해 전공지식을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학습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교수자들은 보충자료를 포함한 모든 교수·학습자료를 영어로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어매개 강의의 개선을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 개방형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의견은 크게 네 가지— 학생 영역, 교수자 영역, 수업 영역, 기타—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안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학습자가 제안한 개선사항은 대체적으로 교수자 영역 관련 내용으로 교수자의 영어능력 및 교수방법, 수업자료 개발, 편안한 교실 환경 조성 등 교수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표 15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개선사항: 학습자

영역	사례 수	주요 답변 내용
학습자 영역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진행을 위한 영어는 학생이 준비 해야 할 몫이지 교·강사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님 개개인의 영어 능력 향상 독려가 필요함 본인의 학습의지, 결국 전공내용을 이해 해야 영어능력도 향상됨
교수자 영역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 교수가 전공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 교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개설 강좌

		수를 늘림
	영어 강의 능력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수업을 진행하려면 수업을 진행 할만한 영어수준이 되어야 하고 불가능 하다면 가능한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진행되어야 함 • 외래강사의 영어 수준 검증이 매우 중요함 • 졸업학과, 학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영어사용 능력을 검증 받고 수업을 진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교수자의 노력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함 • 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말을 천천히 명확히 해 주어야 함 • 학생이 이해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함
	교수법 개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교수님의 충실한 수업준비와 상호작용이 필요함 • 말하기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참여가 주가 되고 해석 위주가 아닌 토론이나 발표 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수업 영역	영어 강의 진행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로 진행되어야 진짜 영어 원어수업 이라고 생각함 • 책의 내용만을 영어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 • 한국인 교수라도 영어로만 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어 혼용 및 보충 자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설명 후 한국어 정리가 필요함. 그리고 테스트는 본인의 지식을 평가 하는것이기에 때문에 한국어로 이루어져야 함 • 영어만이 아닌 한국어 혼용 강의가 이루어져 학생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함 • 한국어로 된 보충자료 있어야 함 •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충 수업같은 체계적 수업 마련이 되어야 함 • 영어 토론을 도울 수 있는 수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함
	수준별 수업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영어능력 수준이 다르기때문에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져야 함 • 수준별 수업을 통해 체계적 수업이 이루어져야 함
기타영역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을 위해 평가 방법을 따로 개발해야 함 • 영어매개 수업을 더 늘려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접할 수 있도록 함 • 무조건적인 영어매개 강의 개설이 아닌 과목 특성에 맞게 개설되어야 함
합계		347

교수자가 생각하는 영어매개 강의의 개선방안을 개방형 설문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16과 같다. 교수자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교수/학습 영역, 전공특성 영역, 기타영역—로 요약할 수 있었다. 특히, 일정수준의 학습자에게만 영어매개 강의 수강 자격 부여, 특정전공에서만 영어매개 강의 진행, 교양수업에 영어매개 강의 확대 등 영어매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표 16

영어매개 강의에 대한 개선사항: 교수자

영역	사례 수	주요 답변 내용
교수 학습 영역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 개발/시행되어야 함 • 전공영역이 아닌 교양영역에서 영어매개 강의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영어매개 강의를 수강하도록 해야 함
전공 영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매개 강의는 전공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음. • 국어/국사 관련학과(국문과, 한문학과, 철학과, 사학과)는 영어매개 강의로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해당 학과 교수 가운데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은 교원은 거의 없을 뿐더러 전공에 대한 이해를 영어로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 영어매개 강의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개적 논의를 통해 영어매개 강의의 적용 범위와 수준이 결정되어야 함
기타 영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같은 강좌에 대해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국어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영어매개 강의를 하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가 확실히 제공되어야 함 • 수강 학생에게 또한 혜택(절대 평가)을 제공함 • 영어강의에 도움이 되는 강의실을 배정함
합계		17

영어매개 강의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학습자는 교수자의 영어강의 진행 및 교수법 개발에 대한 개선사항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교수자는 영어매개 강의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수자는 영어매개 강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차별적 적용 및 영어매개 강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수자 및 학습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영어매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영어매개 강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을 살펴본 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영어매개 강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영어매개 강의는 전반적으로 영어능력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이주연, 2007; 황종배, 안희돈, 2011; J. Ha, 2010)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학습자들은 영어매개 강의가 듣기 능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자들은 읽기 능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동적인 영어기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매개 강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영어 능력별(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것을 미루어보아 향후 영어매개 강의는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차별적 수업모형에 따라 균형잡힌 영어능력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많은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지적한 영어매개 강의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업 등록이 이루어지고 전공의 특성 또한 고려치 않고 의무화된 수업으로 진행된다 보니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정영철, 2008)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어매개 강의의 적용범위를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수준별 영어매개 강의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셋째, 전공 수업의 영어매개 강의 운용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 학습자는 ‘영어교재—한국어 보충자료—영어강의’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수자는 ‘영어교재—영어 보충자료—영어강의’를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강의 매개언어로서의 영어 사용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보충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주었다. 학습자는 보충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어로 정리된 내용의 자료로 보충 학습을 하거나 영어강의 후 교수자가 한국어로 정리를 해 준다면 전공수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반면에 교수자는 기본적으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매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래 취지에 맞게 100% 영어 강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습자와 교수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영어교재를 사용하여 영어로 강의를 하되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를 고려하여 보충자료 또는 보충 수업이 제공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영어매개 강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참여 학습자 수가 교수자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아 비교분석이 어렵고 학습자의 전공분야가 다양하여 대학 영어매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영어매개 강의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영어능력(전반적 영어능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만 치중하는데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공별 영어매개 수업에 대해 영어능력 및 전공지식 이해도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영어매개강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추세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들은 현행 연구를 통해 영어매개강의의 개선방안을 인식하고, 전공분야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영어매개강의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전공습득 및 영어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소연, 박혜선. (2004a). 공학분야에서의 영어 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에 대한 기초 연구. *공학교육연구*, 7(1), 87-96.
- 강소연, 박혜선. (2004b).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의 실태 및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교육연구*, 7(1), 38-44.
- 강순희, 서혁, 신상근, 이종원, 이현주, 최진영. (2007). 사범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11(2), 637-656.
- 교육전문신문. (2012). 대학의 '무조건 영어강의'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월드와이드웹 <http://www.es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에서 2012년 12월 15일에 검색.
- 김달효. (2010). 대학의 영어강의 확대에 대한 비판적 논의.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38-51.
- 김도식. (2008).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가 과연 바람직한가? *철학과 현실*, 76, 73-79.
- 김명환. (2007). 대학의 영어 강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안과 밖*, 22, 243-259.
- 노승빈. (2012). 한국대학생들의 영어정체성과 영어전용 수업에 관한 인식 연구. *영어교육연구*, 43, 84-112.
- 맹은경, 한호, 김현옥, 김성완. (2011). 효과적인 대학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교수자 요구분석 및 지원방안. *영어학연구*, 17(3), 269-301.

- 박종민, 송영수. (2012).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한 대학 e-러닝 영어전용강좌(EMI)의 학습만족도 연구. *학습과학연구*, 6(1), 1-23.
- 박혜숙. (2006a). 공과대학에서의 전공 영어 강의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33, 86-119.
- 박혜숙. (2006b). 강의 언어가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7(3), 319-337.
- 박혜숙, 박인우. (2006). 강의 언어가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7(3), 319-337.
- 배성혜. (2006). *대학의 전공영어강의수강 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 및 수업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서지영. (2010). *국내대학교의 원어강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송영수. (2008). 대학 영어전용강좌(EMI)의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3), 61-84.
- 신소영, 최수정. (2012). 전공영어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및 운영방안 탐구. *현대영어문학*, 30(2), 1-25.
- 심혜진. (2009). *영어전용강의 수강생들의 인식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울산.
- 오희정, 이희원. (2010).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특성과 지원 방안 탐색. *현대영어교육*, 11(1), 191-212.
- 이주연. (2007). *원어강의에 대한 인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전지현. (2002). 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외국어교육*, 9, 233-251.
- 정영철. (2008).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전공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현대영어문학*, 26(3), 191-207.
- 홍성연, 민혜리, 함은혜. (2008). 효과적인 대학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의 특성과 수강 지원 방안: S 대학교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3), 305-329.
- 황중배, 안희돈. (2011). 대학 영어강의의 효과: 전공지식과 영어 능력 측면에서. *영어학*, 11(1), 77-97.
- Cummins, J. (1984). *Bilingualism and special education: Issues in assessment and pedagogy*.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Ha, Jiyoung. (2010). *A comparison of the English and content literacy develop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CBI and KM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ang, Dong-Ho. (2008). An exploratory study of university EFL students' participation in CBI. *English Language Teaching*, 20(1), 19-40.

- Kim, Eun-ju. (2002). Voices of learners from English-medium lectures.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8(2), 145-163.
- Kim, Sung-Yeon. (2002).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classes in the Korean context. *English Teaching*, 57(4), 315-346.
- Kim, Youngsook. (2002).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English use in the secondary English classroom. *English Teaching*, 57(4), 131-156.
- Richards, J. G., & Rogers, T. S. (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김현주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Tel: (031) 8005-3069
Email: hyunjukim@dankook.ac.kr

장셋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Tel: 010-2990-3128
Email: sky699@hanmail.net

Received 31 May 2013
Revised 3 August 2013
Accepted 23 August 2013